

안산시, 美 블룸버그 재단 글로벌 시장 챌린지 최종 후보 도시 올라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최초 글로벌 시장 챌린지 최종 후보 도시에 이름 올라

안산시가 미국 블룸버그 재단이 주관하는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 최종 후보 도시로 선정돼 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번 챌린지에는 전 세계 633개 도시가 지원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안산시가 유일하게 최종 50개 후보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안산시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선정된 도시로, 최종 우승 시 한국 최초의 글로벌 혁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는 미국 블룸버그 재단이 주관하는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Global Mayors Challenge, 이하 챌린지)' 최종 후보 50개 도시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 6회차를 맞는 챌린지는 전 세계 도시의 삶을 개선하는 지방정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회다. 전 세계 인구 10만 이상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도시 서비

스를 강화할 수 있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선발하고 있다. 전 세계 633개 도시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대한민국 안산시와 서울특별시 등 ▲아시아 14개소 ▲유럽 8개소 ▲미주 18개소 ▲아프리카 9개소 ▲오세아니아 1개소 등 33개국 50개 도시가 최종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본선 진출 혜택으로 5만 달러의 시상금을 지원받게 된다.

■ '청년문화센터' 혁신 사업 도시 문제 해결 아이디어 인정 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한 산업도시이자 다양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상호문화도시 안산시는 청년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 플랫폼 및 콘텐츠'를 구축,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블룸버그 재단에서 정부 혁신 프로그램을 이끄는 제임스 앤더슨은 "지방정부는 정책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며, 정부가 삶을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곳"이라며, "안산시의 정책 제

안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설계하고, 공공 부문에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종 결선에서는 일본 후쿠오카, 대만 타이베이, 스페인 바로셀로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핀란드 헬싱키, 프랑스 마르세유, 미국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토론토, 남아공 케이프타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멕시코 멕시코시티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들과 혁신 아이디어를 경쟁하게 된다.

앞으로 안산시는 블룸버그 재단 전문가와 함께 웨비나, 아이디어 캠프, 온라인 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최종 결선에 도전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최종 25개 우승 도시로 선정될 경우, 안산시는 상금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6천만 원)와 정책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운영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상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인정받음으로써 도시브랜드 가치 또한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 북동삼거리 일원 대선로 확·포장공사 올해 안 준공목표



안산시가 추진중인 대선로 확·포장공사 구간을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다. 단원구 대부북동 1837-76번지 일원으로 총길이 415m, 폭 20m,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구간이다. 북동삼거리에서 우구미교차로(대부북동 앞 삼거리)까지 거리다. 김태창 기자

총길이 415m, 폭 20m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대부도 북동삼거리 일원 대선로 확·포장공사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안산시가 추진중인 대선로 확·포장공사는 단원구 대부북동 1837-76번지 일원으로 총길이 415m, 폭 20m,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 사업비는 33억5천만원이다. 지난 2001년 8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2020년 7월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2024년 2월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졌다. 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갔고 올해들어 본격화 되면서 올해 안으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길이는 북동삼거리에서 대부북동 앞 삼거리까지 짧지만 상동과

영흥도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그 방향에서 나오는 주말 나들이객은 다소나마 교통정체로부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예산의 한계로 대선로의 일부만 공사하고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공사를 할 것"이라며 "이번 구간은 최선을 다해 올해 말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市,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 본격화

30일 토지보상계획 공고

안산시가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오는 30일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29년까지 단원구 신길동 331-1번지 일원에 면적 (278,947㎡)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의 시행자는 안산도시공사다.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안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업 구

조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핵심사업이다.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이 지역에 다양한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토지보상계획 공고는 안산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첫 과정이다. 안산도시공사는 향후 대상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안내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절차, 기간 등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신길 일반산업단지는 안산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프로젝트로, 이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저널 직원 모집

모집부문	인원	자격요건
편집국 기자	0명	경력사항 : 신입/경력(연차무관) 학력사항 : 대학(2.3년) 졸업 이상 기 타 : 대부도 및 안산거주자 우대
광고/사업국	0명	경력사항 : 신입/경력(연차무관) 학력사항 : 고졸이상 기 타 : 1.대부도 및 안산거주자 우대 2.차량소지자 우대
영상제작편집국	0명	경력사항 : 경력자(영상 제작 편집 가능자) 학력사항 : 학력 무관 기 타 : 유튜브 제작 경험자 우대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1부, 이력서 1부(지원부문 명기)
- 제출기간 : 채용시까지
- 대 우 : 4대보험 가입, 급여는 연봉 협의 후 결정
- 서류제출 : E-mail dj250407@naver.com

※ 직접 내방이나 우편접수도 가능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부도저널(주) 총무국 ☎ 032-880-9994

안산시,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 거행



안산시는 25일 상록구 본오동에 소재한 안산시 보훈회관에서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정희재 기자

상록구 본오동에 소재한 안산시 보훈회관에서 개최

안산시는 25일 상록구 본오동에 소재한 안산시 보훈회관에서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6.25 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키신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6.25 참전유공자, 보훈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6.25 전쟁 관련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무궁화장 수여 ▲참전유공자 표창 ▲시립합창단 공연 ▲만세삼창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사함과 이 시대의 평화의 소중함을 생

각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됐다.

이민근 시장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소중한 일상의 바탕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분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그 숭고한 뜻이 미래세대에 이어지도록 하고, 진심 어린 보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지난 2023년부터 참전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을 월 16만 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아울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보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환경재단, 2025 사회공헌기업대상 ESG 부문 2년 연속 수상

ESG탄소중립교육원, 실무형 ESG 교육 모델로 높은 평가

안산환경재단 ESG탄소중립교육원은 '2025 사회공헌기업대상'에서 ESG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시상식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으며, 임동균 ESG탄소중립교육원장이 수상자로 참석했다.

이번 수상은 안산시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서 실무형 ESG 교육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산업 현장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이 주목받았다.

탄소중립교육원은 안산환경재단이 2022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이후 운영해 온 핵심 프로그램으로, 중

소 제조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실무 ESG 교육과정이다. 2023년 개설 이후 총 14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5기 과정에는 20명 이상의 대기자가 몰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민근 이사장은 "안산은 제조업 기반의 기업도시로서 ESG 실천을 선도할 책임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산업 기반 확대와 함께 지역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균 원장은 "참여 기업들이 교육을 통해 ESG의 본질과 방향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ESG 실천의 기반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산환경재단 환경교육센터



안산환경재단 ESG탄소중립교육원이 '2025 사회공헌기업대상'에서 ESG 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시상식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으며, 임동균 ESG탄소중립교육원장이 수상자로 참석했다.

김태창 기자

는 안산시 제1차 환경교육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 환경교육주간을 맞아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김태창 기자

市, 청년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 진행



안산시는 20일과 21일 상록수체육관에서 양일간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양운영 기자

20일과 21일 양일간 상록수체육관에서 펼쳐

안산시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세사기 피해가 부동산 계약에 취약한 청년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청년들에게 전세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다양한 전세 계약 매뉴얼을 제공해 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돕고자 추진됐다.

캠페인은 이틀간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2025 안산청년페어' 행사와 연계해 진행했다. 행사장 내 홍보부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NO, 안전한 우

리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서는 ▲주요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법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슬기로운 전세계약 ▲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안심계약 매뉴얼을 배부와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등의 안내, 전세 계약 관련 현장 상담 등을 진행했다. 특히, 부동산 계약 용어 설명과 계약 전·후 등기부등본 확인법 등 청년들의 안전한 계약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이 안내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민근 시장은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심계약 매뉴얼'

전국 청년이 주목한 '2025 안산청년페어' 성황 마무리

창업부터 취업·정책까지 청년을 위한 전국 축제

안산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안산 청년페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안산의 미래, 청년을 잇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청년 창업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정책·진로·문화·복지 등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전국 단위에 통합 플랫폼 축제로 꾸며졌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시와 경기테크노파크·상상대로·상상스테이션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이틀간 1,800여 명의 청년이 찾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행사 첫날 열린 청년창업경진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13개 청년팀의 도전과 경쟁이 펼쳐졌다. 이날 전문 투자심사위원단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청년팀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대회의 심사 총평을 맡은 구원회 앤슬파트너스 대표는 "전반적으로 사업화에 대한 깊은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을 갖춘 팀들이 많아 안산 청년 창업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며 "참가팀들의 높은 기술 혁신성과 사업 역량이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특히, 안산시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 노력 덕분에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우수 아이템이 많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회는 수상팀에게 자금이나 사업화 자금 외에도 안산의 인프라를 활용한 PoC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사업화 연계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욱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평가 결과, 대상은 3D 모델링과 정밀 식품 가공 기술 활용 등을 선

보인 '주식회사 천년식향' 팀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에는 '쥬디알티'팀과 '팀패스'팀이 ▲우수상은 '뉴런소프트'팀, '신화미디어'팀, '파일러니어'팀, '에피핑크'팀 4팀이 ▲장려상은 '세에프'팀, '주식회사 하울링'팀, '다바인섹트컴퍼니'팀, '한국환경정보주식회사'팀, '(주)호랑에듀팀, '세움'팀 등 총 6팀이 선정됐다. 이번 수상팀에는 총 4,500만 원의 시상금과 2억 4,5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금이 지급됐다.

안산시는 수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선배 창업자 및 전문가 멘토링,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입주 공간 무상 제공과 투자자 연계, 청년창업펀드 지원 등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맨스팀 '킴뱃'의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린 개막 행사에서는 이민근 안산시장의 환영사와 터치버튼 세레모니를 통해 청년의 가능성과 미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글로벌 통합 언어 플랫폼 '플리토' 대표와 투자사 'HB인베스트먼트'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서는 청년 창업자를 위한 실질적 조언이 이어졌고, 관내 농업(그린티플)·소상공인(쥬얼정) 창업자들도 연단에 올라 소소한 팁을 공유했다.

이민근 시장은 "올해 처음 개최된 '2025 안산청년페어'는 청년 창업과 취업, 청년정책 등 청년들이 관심 있는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는 최초의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청년도시 안산시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청년의 실질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된 '2025 안산 청년페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윤성용 기자

본사방문 감사합니다

△ 대부도호텔 마리아 대표 권준혁



을 잘 활용한다면 안전한 계약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현장 캠페인 추진 등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지난 2023년 6월

부터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를 설치한 뒤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법률상담 ▲생계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홍보 등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정승현 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승현 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의 북한이탈주민은 약 3만 1천여 명에 이르며 이

정착지원 항목 구체화 모범사업주 우선구매 명시 일자리부터 자립까지 삶 전반에 걸쳐 지원 제시

가운데 35.5%에 해당하는 1만 1천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75%에 달해, 다양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촘촘히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데 방점을 뒀다”며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 법률 지원 등 정착 과정 전반에 필요한 지원 항목들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도 함께 강화됐다. 일정 기준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모범 사업주의 생산품을 경기도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이들을 위한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정착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이 함께 실현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박은경 시의원 발의 ‘공동근로 복지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자금 지원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4일 의회 제2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박은경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확대 지원하는 내용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자금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공동근로복지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동근로복지자금은 근로복지기 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나 장학금 지급 등의 복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노동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에

는 어려운 환경으로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추진하는 경우 복지수준이 향상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복지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공동근로복지자금 지원 및 범위 ▲공동근로복지자금 지원기간 및 절차 ▲공동근로복지자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기금을 통한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 골목골목 용기를!’ 안산 봉사단체, 용기백배봉사단 발족

용혜인 의원 “소외된 자리에 용기 불어넣는 활동 기대 다양한 현장에 함께 하겠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본오동에서 진행된 ‘용기백배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줍깅)’에 직접 참여했다.

용기백배봉사단은 안산 지역을 사랑하고, 기본소득 제도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봉사단체로,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 곳곳에서 정기적인 자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발대식은 22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안산시 본오동 소재 용혜인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어지는 활동으로는 본오동 먹자골목 일대의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용혜인 의원은 “용기백배봉사단은 단순한 봉사단체가 아니라, 기본소득 정신을 실천하며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귀중한 단체”라며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현장에 함께 하며 삶을 바꾸는 정치 실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용기백배봉사단은 앞으로 안산 지역을 기반으로 △주거적인 거리 청소 △소외계층 간식 나눔, △청소년 대상 응원키트 제작 및 전달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 △한해 장려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23일 오전, 본오동에서 진행된 ‘용기백배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환경정화활동(줍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최진호 시의원 발의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4일 의회 제2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최진호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

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공지능(AI)이 우리 일상과 행정환경 전반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도 인공지능을 행

19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 인공지능 기반의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 추진

정에 접목하고 활용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최진호 의원을 비롯한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추진계획 수립 △정책연구·조직진단을 통한 도입 효율화 △공무원 대상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의 실무 중심 교육과 지원체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역할 변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등을 담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진호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행정 구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산시 행정이 더욱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디지털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장윤정 의원 “특성화고, AI 시대의 인재 양성 거점 되어야”

19일, 「특성화고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다」 정책토론회 참석



관에서 열린 「특성화고,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AI 시대를 선도할 기술 기반 창의 인재의 산실로 특성화고가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자로 나선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AI소프트웨어과’, ‘AI게임콘텐츠과’, ‘AI시각디자인과’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특성화고 학과 신설과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학교

는 여전히 실습 장비 부족, 교원의 실무역량 미비, 이론 위주의 수업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윤정 의원은 특히 “특성화고 고교학점제 AI 관련 과목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기초’,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 수준 과목이 편중된 반면, 응용·심화 과목 개설은 매우 드문 상황”이라며, “이는 AI 관련 교육이 이름만 바뀐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윤정 의원은 특성화고 AI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3대 조건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전형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 ▲산업 현장을 경험한 실무형 교원 확보 및 전문가 강의, ▲실습 장비·소프트웨어 등 교육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새마을회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 ‘한마음 수련대회’ 가져

대부동 대부도펜션시티에서
새마을운동 30년 11명에게
새마을기념장 수여 ‘축하’

안산시새마을회(회장 임충열)는 25일 대부도펜션시티에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 제55주년과 제15회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 지역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안산시 새마을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장,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박해철 국회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에서는 새마을운동에 30년 이상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11명의 안산시 새마을지도자에게 새마을중앙회로부터 ‘새마을 기념장’이 수여됐다. 이 외에도 이웃사랑과 사회봉사 실천에 앞장선 우수 새마을 회원들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임충열 안산시새마을회 회장은 “오늘의 안산시새마을회가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해 오신 지도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



안산시새마을회는 25일 대부도펜션시티에서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실천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산시새마을회 숙원사업인 회관을 건립하는데 장상동신도시 부지에 마련할 수 있도록 안산시장과 시의회의장,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하고 “건물은 경기도새마을회에서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안산시는 부지만 마련해주면 된다”고 말해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민근 시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 자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새마을회와 함께 지역 발전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새마을회 회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함께 노력하면 무엇을 못하겠는가”라고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1970년 4월22일 박정희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자연스럽게 새마을운동을 만들게 되었다”면서 “시작은 시골에서 했

지만 지금은 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다시한번 오늘 행사를 축하하고 회관 문제는 시가 결정할 때 좋으면 좋다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의원은 “대부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다”며 “오늘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있는데 일찍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오늘 받은 상증에서도 30년 된 활동으로 받은 새마을기념장을 받은 분은 새마을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당전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빠르면 내년말 완공 목표

토지보상은 이미 마무리
도로건설 비용 확보가 문제

당전마을 도로 확·포장공사가 빠르면 올해 안으로 공사가 발주되고 내년말까지는 완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산시와 당전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대부황금로에서 당전경로당까지 300여m 도로가 왕복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미 보상절차는 마무리돼 예산만 반영되면 순차적으로 도로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당전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본예산에 1억5천

만원을 반영하고, 오는 9월에 있을 2차 추경에 10억원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발주에 들어간다는 복안이다.

총 예산은 2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전경로당 윤성중 회장은 “도로가 확장되면 현재는 도로폭이 좁아 폭버스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폭버스도 들어올 수 있고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도로공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당전마을 주민들이 도로확·포장 공사를 기대하고 있는 당전마을 안길 모습이다. 현재는 도로폭이 좁아 폭버스가 다니기에는 교행이 불가능한 곳이다.

김태창 기자

대부동 행복마을관리소, 행복마음 나눔 사업 마무리



단원구 대부동 행복마을관리소는 24일 ‘행복마음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에 파종한 씨감자를 수확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이선화 기자

지난 3월에 파종한 씨감자
수확 관내 취약계층 전달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행복마을관리소는 24일 ‘행복마음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에 파종한 씨감자를 수확해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부동 행복마을관리소를 비롯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0여 명이 참여해 정성껏 감자를 수확했다, 수확

한 감자는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돼 지역 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수확 활동은 단순한 농작물 수확을 넘어 대부동 내 직능단체들이 협력해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연대 강화에 기여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감자 수확 행사에 여러 직능단체가 함께해 더욱 의미가 있었다”며 “행복마을관리소의 ‘행복마음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대부도에 국공장 유치하자

대부도에 국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대부동주민자치위원인 진영철 위원이 발벗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진 위원은 ‘대부동 국공 조성 서명서’를 대부동행정복지센터 내에 비치하는 등 대부동 전역을 돌며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27일 현재까지 30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도에 국공장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진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 정 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사)루씨(樓氏)최용신선생기념사업회 2025년도 워크숍

21일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소재 들국화펜션에서 진행

사단법인 루씨(樓氏) 최용신 선생 기념사업회(이사장 김영덕) 이사들의 2025년도 워크숍이 21일 토요일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소재 들국화펜션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총회에서 논의했던 사단법인의 미래와 임원들의 화합 및 친목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21일 오전 8시 호수공원 제3주차장에서 모여 승용차 3대로 이동했다.

이미 개별 승용차로 먼저 출발했거나 현지에서 합류한 이사까지 모두 13명이 참석했다.

워크숍 추진위원장은 김대현 부이사장이 맡아서 진행했고 루씨 어린이집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주 회원과 다른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먼저 사단법인 루씨(樓氏) 최용신 선생 기념사업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이사들은 다문화사업, 영상페스티



사단법인 루씨(樓氏) 최용신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들의 2025년도 워크숍이 21일 토요일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소재 들국화펜션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벌, 그림그리기 대회, 각종 공모사업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으며 추가적인 논의는 안산에 가서 앞으로 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특히 최용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최용신 선생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3개 단체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각종 행사를 진

행할 경우 먼저 이사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대처하자는데 대체적인 합의를 봤다.

각종 공모사업은 안산시와 경기도를 넘어 현 여성가족부에게까지 눈길을 돌려 추진하자는 데도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중에도 많은 이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워크숍에 참여해줘 고맙다”면서 “이사들이 젊어지고 있어 미래가 밝다”고 말하고 “행사추진시 TF를 만들어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된 점은 이번 워크숍의 가장 큰 결실이다”고 자부심을 보였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본격 정통여성국극 <여성국극 춘향> 안산에서 무대에 오른다

최초의 K-뮤지컬 여성국극의 감동이 다시 깨어난다!

오는 7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안산문화재단(이사장 이민근, 대표이사 김태훈) 상주단체인 여성국극제작소의 기획공연 <여성국극 춘향>이 막을 올린다.

<여성국극 춘향>은 널리 알려진 고전인 춘향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국극인 <옥중화>(1948)와 이를 계승한 <대춘향전>(2011)의 계보를 잇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는 춘향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판으로 만날 수 있는 드문 기회이자, 여성국극의 전성기인 1950년대 이후 최대규모의 공연으로 주목받고 있다.

배우와 안무, 악사를 포함한 30여명의 출연진이 대극장을 화려하게 채울 예정이며, <대춘향전>에 참여했던 최병규 연출, 이관웅 음악감독, 이승희 안무감독, 박진철 음악감독 등 관록 있는 제작진이 합세해 무대의 완성도를 더한다.

여성국극제작소는 “<여성국극 춘향>을 통해 여성국극이라는 장르의 본질에 충실한, 다시 말해 정통을 이은 본격적인 여성국극 무대를 선보이려 한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출연진으로는 여성국극 계승자 박수빈이 <대춘향전>에 이어 이

번 공연에서도 몽룡 역을 맡아 여성국극만의 매력을 다시금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전북무형유산 제2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이자 국가무형유산 제1호 종묘제례악 일부 이수자인 한국국악협회 안산지부 지부장 이윤선이 춘향 역을 맡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윤선 지부장은 “안산에서 여성국극이 부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공연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국극 원로 배우인 이소자, 조영숙, 김성애가 각각 변사또, 방자, 월매 역을 맡아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여성국극제작소는 2019년, 여성국극 계승자인 박수빈 대표를 중심으로 여성국극의 정통을 이어가 고자 설립된 단체로서, 설립 이후 지금까지 여성국극의 다양한 모습을 무대 위에 펼쳐왔다.

작년에 이어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상주단체로 선정된 여성국극제작소는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 안산 청년 디자이너 모임인 로디클과의 협업을 통해 여성국극의 부흥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여성국극 춘향>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NOL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오는 7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안산문화재단 상주단체인 여성국극제작소의 기획공연 <여성국극 춘향>이 막을 올린다. 김태창 기자

2025 ‘하이! 학교에서 만나요, 하이러닝’ 직무연수 “‘낮선 디지털 플랫폼을 익숙한 수업 도구로 바꾸는 연수!’”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실습 중심 연수 운영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교실 수업의 질적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Hi-Learning) 활용 연수’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하이러닝의 수업 활용도를 높이고, 교사들의 디지털 수업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6월 25일(수) 상록고등학교를 시작으로 7월까지 총 13개 중·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현장 연수’형태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6월 25일(수) 1차 연수가 열린 상록고등학교에서는 소속 교사 33명이 스마트교실에서 실습 중심의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7월 16일(수) 2차 연수도 36명을 대상으로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성안고등학교, 선부중학교, 성호중학교, 강서고등학교, 안산성호중학교 등 다양한 학교에서 컴퓨터실, 토의토론실 등을 활용해 맞춤형 연수가 진행되며, 각 학교의 실정에 맞춰 구성된 이번 연수에서는 하이러닝 플랫폼의 주요 기능 안내, 교과별 수업 적용 방안, 실제 수업 사례 중심의 실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단순한 플랫폼 연수에 그치지 않고, 연수 이후 교사들이 실제로 수업을 설계하고 하이러닝을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수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지속적인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이 지역 특색에 맞춰 추진 중인 디지털 교육혁신 프로젝트 ‘안산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교실 수업의 질적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Hi-Learning) 활용 연수’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마냥ON디지털 교육’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디지털 도구를 일상적인 수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김수진 교육장은 “하이러닝은 단순

한 디지털 도구를 넘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정교하게 확장시키고 학생 맞춤형 학습을 구현하는 교육혁신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AI 기반 교수학습 환

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이를 수업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현장 지원과 우수사례의 체계적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청 김하운, 34년 만에 세계유도대회 최중량급 금메달 쾌거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부 소속 김하운 선수

안산시는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유도부 소속 김하운 선수가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5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유도 +78kg 이상(최중량)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하운 선수는 20일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의 아라이 마오 선수를

지도승으로 꺾고 대한민국 유도대표단에 유일한 금메달을 안겼다.

김하운 선수는 지난 199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회 이후 34년 만에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여자 최중량급 챔피언으로 등극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김 선수는 21일 열린 혼성 단체전에도 참가해 7년 만의 은메달 달성에도 힘을 보탰다.

김 선수는 안산시 유도부 소속으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24년 세계선수권대회·파리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대회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여자 유도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김하운 선수는 이번 상송세를 발판으로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게임과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대회 금메달까지 획득해 그랜드슬램(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아시안게임·아시안선수권대회 우승)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희재 기자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단 해단식

시, 경기도체육대회 2년 연속 종합 4위, 전국소년체육대회 금메달 10개 획득

안산시체육회는 6월 20일 오후 6시 30분, 단원구 적금로에 위치한 안산상공회의소 5층 그레이트컨벤션에서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안산시 선수단 해단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순 안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이광중 안산시체육회장, 용혜인 국회의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 이진분 시의원 등 주요 내빈과 출전 학교장, 종목단체장, 체육회 임직원,

선수단 등 약 1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해단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성적 보고, 성취상 봉납, 선수 포상금 전달, 축사, 기념촬영 및 만찬 순으로 진행되며, 전국과 도 단위 대회를 빛낸 안산시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안산시는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체육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예술어린이집, 고잔동 지사협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단원구 고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4일 예술어린이집으로부터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100만3천 원을 기탁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받은 성금은 원아들이 시장놀이 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원아들이 직접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을 통해 경제활동의 기초 개념과 나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복미 예술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며 직접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백운동 자율방범대 풍전지대, 감자나눔 사랑 실천



단원구 백운동 자율방범대 풍전지대(지대장 윤성숙)는 25일 신길동 텃밭에서 수확한 감자 22박스를 관내 8개 경로당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자 나눔은 새벽부터 대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정성껏 수확한 것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 4월 감자를 파종하고 가꾸어온 자율방범대 풍전지대 대원들은 그동안 감자 수확을 위해 풀을 메고 물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선부2동 지사협, 한국마사회 안산지사 기부금 받아



단원구 선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5일 한국마사회 안산지사로부터 기부금을 55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선부2동 지사협은 ‘2025년 한국마사회 안산지사 기부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지원받은 기부금은 오는 11월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용호 한국마사회 안산지사장은 “이번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기로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마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석 민간위원장은 “한국마사회의 따뜻한 기부에 감사드리며,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선부2동장은 “지역사회 복지향상을 위해 기부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이동, 관내 경로당 내 자동전자혈압계 지원



상록구 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내 경로당 6개소에 ‘자동전자혈압계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으로 추진됐으며, 고령화 사회에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에 의료기기를 지원해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관내 경로당 6개소(푸르지오 2차 아파트, 그린빌 10단지 아파트, 이동, 상록수, 매화, 무지개 경로당)에 모두 자동전자혈압계를 설치했다.

관내 경로당의 한 관계자는 “평소 혈압이 높아 병원에 체크하러 가는게 번거로웠는데, 이제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혈압 측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박옥란 이동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내 어르신들의 보건·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초지동, 주민들에게 청사 주변‘꽃길’ 선사



단원구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는 25일 동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여름꽃 500본을 식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심은 메리골드, 백일홍 등 예쁜 여름꽃들이 다채로운 색깔로 화사하게 화단을 물들였으며,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 주변에 심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꽃을 감상하며 계절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게 했다.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작은 손길이지만 마을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병호 초지동장은 “이번 꽃 식재는 단순한 미화 작업을 넘어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더 살기 좋은 초지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 032-880-9994

호수동 체육회, 2025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단원구 호수동 체육회는 24일 호수체육관에서 ‘2025년 호수동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합동 제기차기로 시작된 경기는 4개 팀이 예선전과 결승전을 치르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며, 호수동 배구구단과 직능단체로 구성된 팀 대결로 배구 친선경기로 대회를 마쳤다. 참가자들은 열띤 분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친목을 다졌다.

김창성 호수동 체육회장은 “체육행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해주신 호수동 행정복지센터와 직능단체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호수동 주민들의 건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정 호수동장은 “호수동의 여러 단체원과 소통의 시간을 가져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동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토지분양 / 컨설팅



양지개발

대표 김상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 (방조제길 113)

안산시 60대 축구 대표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우승 기념

안산시체육회 초청
친선 축구 교류전 개최
인천·서울과 뜨거운
우정의 교류전 펼쳐

지난 22일, 안산 와-스타디움 보조 경기장에서 안산시와 인천 남동구, 서울 영등포구의 60대 및 70대 축구 동호인들이 함께하는 '친선 축구 교류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교류전은 안산시 60대 축구 대

표팀이 지난 4월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경기 도어울림축구대회'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한 쾌거를 기념하고, 인근 도시와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며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안산시 이광중 체육회장과 김원덕 축구협회장, 서울 영등포구 오성식 체육회장장과 장봉득 축구협회장, 인천 남동구 노용호 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승패를 떠나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선수들은 나이를 잊은 열정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이광중 안산시체육회장은 “안산시 60대 축구팀의 빛나는 우승을 기념하며 이웃 도시의 축구 동호인들과 함께하는 교류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전 개최를 통해 이웃 도시들과의 우정을 다지고, 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축하, 홍보, 급매 광고 전문

생일, 결혼, 승진, 축하 광고.
상호, 제품, 행사, 영업 홍보.

급하다! 지금팔자! 부동산 급매물

대부도저널 광고국장
김선중 M: 010.3199.4992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동주염전 소금

토판 소금 / 일반 천일염 / 송하소금 판매

김관중 M: 010.9080.1195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 127-1 / 동주염전 2구

대부도 방아머리의 명소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금로 1501-1

전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아티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씀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667(대부남동), 202호

최욱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욱진 T: 032.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용담바다낚시터

오준태 M. 010.5285.06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낚시터

등대바다낚시터

이한중 M. 010.3738.66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K3 바다낚시터

최병희 M. 010.5230.85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서해부동산

박현배 M. 010.8810.3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어지런이길 61-8(대부남동)

토야프렌즈

조기열 M. 010.9436.9055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03번길12, 1동 401호

선재 레저

조부형 M. 010.8813.0515

미래발전협의회

회장 황진 M. 010-7632-1150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백령도 K-관광섬, 군(軍) 면회객 대상 여행상품 진행

「백령도에 왔으면회」 대성황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

웅진군은 백령도 K-관광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백령도에 왔으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행 이벤트는 백령도 내 군 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과 면회객에게 특별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여자 모집을 위한 사연 공모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려 여행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다.

‘백령도에 왔으면회’는 백령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이색적인 체험을 즐기면서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자전거를 타고 천연비행장인 사곶해변을 달리고, 콩돌해변과 두무진을 찾아 백령도의 수려한 경관을 만끽하고, BBQ 파티와 불명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여행에 참여한 한 면회객은 “아들이 많이 보고 싶었지만 백령도라서



‘백령도에 왔으면회’ 여행 이벤트는 백령도 내 군부대에 복무 중인 군장병과 면회객에게 특별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용 기자

갈 엄두가 나질 않았는데 여행상품 덕분에 정말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며 전했다.

덧붙여 “단순한 면회를 넘어 가족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백령도라는 섬의 매력에 푹 빠져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여행 이벤트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백령도 군장병과 면회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이라며, “백령도의 특성을 살린 여행상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백령도를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웅진군 수산종자연구소 어린 꽃게 30만미 방류

대청도 연구소내 자체
꽃게종자생산, 대청방류

웅진군은 25일, 대청도 지두리 해변에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린 꽃게 약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웅진군 수산종자연구소에서 약 1개월 가량 사육한 어린 꽃게는 전염병검사를 마친 1cm이상의 건강한 수산종자로 대청면장, 어촌계장, 유관기관, 지역어업인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식 최적지인 지두리 해변에 방류하였다.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는 내년 봄에는 어획이 가능한 크기로 자라 어족자원 고갈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웅진군 관계자는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꽃게를 비롯한 서해5도 지역의 토종 수산종자 대상 연구·육성을 통해 종자 자체 보급체계가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은 25일, 대청도 지두리 해변에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린 꽃게 약 30만 마리를 방류했다. 김태창 기자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인천의료원 선우영경 과장
슈퍼마이저로 참석 자문

웅진군은 23일 제2회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천의료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선우영경 과장이 슈퍼마이저로 참석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회 슈퍼비전 회의에서 논의된 사례들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개선 사항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신규 사례에 대한 심층 회의를 진행하여,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 가족 기능 회복, 지역자원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가 이루어졌다.

선우영경 과장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개입 전략과 조언을 제시해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했다.

웅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아동에게 보다 적절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웅진군 희망드림팀(☎ 032-899-2696~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웅진군은 23일 제2회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회의를 개최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백령면 클린업 “콩돌해안 대청소”

면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

웅진군 백령면(면장 박상준)은 26일, 백령도의 대표 관광명소 중 하나인 콩돌해안 일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여름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백령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면 직원 등 50

여 명이 참여해 바다로부터 유입된 부유물 및 각종 쓰레기 약 10톤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상준 면장은 “백령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청정하고 아름다운 섬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절별 환경정비를 꾸준히 실시해 나가겠다”며, “자연환경 보호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해병대 선후배님들의 지역 모임입니다
해병대 신입대원을 찾습니다

대부전우회 회장 최영휘 010-3755-5859
대부전우회 사무국장 임준채 010-3731-4754

김동연 지사 “유리천장 깨기, 공직사회부터 실천했다. 보이지 않는 차별 아직 많아. 여성 리더들과 함께 노력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해왔으며 여러 여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김태창 기자

김동연 지사 26일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참석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 두 배로 늘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해왔으며 여러 여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를 통해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여성)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며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의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 과장급 여성 간부는 64% 늘어났다. 재작년 보건

환경연구원장직을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성 원장이 발탁됐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여성을 특별히 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했던 여러 가지 여성 정책들이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됐다”며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런 슬로건을 제가 늘 내세웠는데 여성정책에서부터 이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대단히 반갑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성평등 전문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31개 시군에도 양성

평등 전문관을 두도록 권고하고, 각 시군의 성평등 추진 체계를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새 정부 공약에는 각 시·도에 '성평등전문관'을 두겠다고 돼 있다. 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도 '디지털성폭력지원센터'를 전국에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하지만 아직도 깨어야 할 유리천장이, 깨어야 할 보이지 않는 차별이 너무 많이 있다.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와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가자들과 함께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 지사는 이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여성 독립운동가와 지도자들을 언급하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소설 '상록수' 실제 모델인 안산의 최용신 선생님, '농촌의 발전은 여성의

분투에 있다'면서 계몽운동을 하셨다. 또 배화여학교 친구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최연소 독립운동가, 연천의 소은숙, 소은명 자매분.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독립운동의 광복군으로 헌신하신 여성 애국지사, 용인의 오히옥 지사님, 그런 전통과 유산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시기의 전환점에 서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경기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참여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진보도 완성될 수 없다”며 “여성의 목소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여성이 관점과 해법을 제시하는 시대파트너십을 확장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경기여성대회는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도내 여성들을 격려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김 지사는 매년 행사에 참여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인 배우자 정우영 여사를 비롯해 이금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 등 여성단체 대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 신계용 과천시장,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등 유관기관 대표, 시장·군수 배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발전 유공자 등 32명에게 도지사 표창과 상장을 수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미래통일교육을 위한 안보 현장을 직접 가다

25일 경기도교육청, ‘2025 안보 견학’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025년 안보 견학’을 오는 25일 실시한다.

이번 견학은 저연차 공무원과 보안업무 담당자의 올바른 안보관, 국가관 확립, 보안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국가 안보 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교육청 각 부서의 보안업무 담당 직원을 비롯해 희망 직원까지 총 50여 명이 견학에 참여하며, 주요 견학 장소는 파주 임진각 일대와 경기도교육청미래통일교육센터이다.

이날 오전에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타고 비무장지대(DMZ) 하를

길을 체험하며, 임진강 평화전망대와 평화 등대도 견학한다. 오후에는 올해 개관한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강사의 안보·통일 강의를 듣고, 전시실을 관람하며 안보와 평화 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8월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연계한 이번 견학으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참가자의 인식을 높이고, 공직자로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안보 현장 체험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과 책임감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이제는 예방이 먼저!

2025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활동 본격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불균형 체형 예방 활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디지털기기 사용 증가, 장시간 학습, 좌식 생활 습관, 운동 부족 등으로 자체 불균형과 척추·관절 질환이 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심한 경우 만성통증, 척추측만증, 집중력 저하로 학습과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도내 40개 학교(초 32교, 중 5교, 고 3교)를 선정해 초4~고3 8,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형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체형 전문인력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의 어깨·골반 기울기, 척추·목뼈 휜 정도, 다리 굴곡 등 총 7개 항목을 측정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과 지속적인 생활 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열어



경기도의회는 24일 오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진경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자치분권 실현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는 24일 오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세미나에서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방안,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방안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논의됐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이광희 의원(더민주, 청주시서원구)이 직접 기조 강연에 나서 지방의회 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해주목을 받았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

정으로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예산편성권, 조직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라며 “미완의 독립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방의회 스스로가 역량을 키우고, 도민의 탄탄한 신뢰를 얻는 데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경기도의회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내실을 키우기 위한 기초체력을 다져가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분명한 의지로 지방의회의 더 큰 발전을 이뤄내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장 개회사 직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자치분권 분과위원장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총무행정 분과위원장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인사행정 분과위원장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 재정분권 분과위원장 정동혁 의원(더민주, 고양3)이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자치분권 제도개선 건의안'을 이광희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이광희 의원은 지방의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기능과 위상 제고를 위한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법 제정뿐만 아니라 의회가 직접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민원청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경북대 복지행정학과 이상미 교수가 단기적으로 경기연구회 산하 의정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을 통해 의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경기의회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실행방안'을, 김진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의회사무기구 조직구조 분석과 대응전략 등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전문가 토론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하태수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에 나섰다. 김태창 기자

안산시 인사

■ 정년퇴직

- ▶ 서기관
△유진숙 △정명현 △조용대
- ▶ 사무관
△김선미 △김치영 △조현 △신항식

△통합돌봄과장 정소우 △정수과장 김현식 △반월동장 정대섭
△도시계획과장 이태주 △토지정보과장 전광식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박명준
△사동장 오현갑

■ 파견(공로연수)

- ▶ 서기관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 △상록구청장 이영분 △산업지원본부장 채종렬

■ 사무관

△해양동장 서정아 △단원구 세무2과장 이재구 △통합돌봄과장 박현식
△사이동장 한은현 △성포동장 최승희 △분오1동장 김종만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양남중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선홍 △토지정보과장 박용남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유진희

■ 전보

- ▶ 서기관
△상록구청장 박종홍

▶ 사무관

△세정과장 이대순 △정수과장 정문서
△체육진흥과장 이지영 △사이동장 두현은 △해양동장 문훈기 △단원구 주민복지과장 이지현

■ 승진

- ▶ 서기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 사무관

△기획예산과장 박승규 △문화예술과장 박항미 △수소행정과장 이미경 △분오1동장 박세광 △성포동장 박순덕
△단원구 세무2과장 신운호 △고교동장 이인희 △단원구 도로교통과장 김병제 △단원구 도시주택과장 최락준 △단원구 환경위생과장 배진수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선주 △주택과장 이종걸 △복지과장 류제천
△상록구 민원봉사과장 김성현

■ 직무대리

- ▶ 사무관
△교통정책과장 이동규

〈2025. 7. 1〉

레저보트매니아 동우회, 화성 입파도에서 동우회 최초로 치어방류 행사 가져

민간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치어 방류기금을 조성해 치어방류한 최초 사례 ‘호평’

22일 오전부터 경기도 화성특례시 제부마리나 선착장에는 레저보트매니아 동우회에서 동우회 최초로 치어방류 행사를 하기위해 전국 각지에서 보트를 끌고 새벽부터 모였다.

1부 행사로는 레저보트 선장들이 미리 준비한 5톤 차에서 치어를 전달받아 보트에서 기포기를 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관계자들만 간단하게 약식으로 마리나 육상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행사는 경기도와 화성시 관계자들과 전국의 레저보트 동우회 선장 및 가족들 포함 약100여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진행했다.

레저보트매니아의 매니저인 김명철(준스파파)의 치어방류 행사를 계획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의 레저보트매니아의 계획 과 인사말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장은 “민간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치어 방류기금을 조성하는 사례는 민관협력 수산자원조성의 선도 사례이자 레저와 어업의 상생을 여는 출발점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확대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뒷받침 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금규 사업본부장, 제부리 최병천 어촌계장, 박종민 경기도농수산생명과학장과 많은 내빈들이 소개됐다.

1부 행사는 간결하면서 짹막하게 마치고 바로 이어서 2부 행사인 치어방류 행사가 시작됐다.

5톤 차가 제부마리나에 조피볼락 물 온도를 15도로 맞춰왔는데 바다 온도는 22도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약1시간정도 바다온도와 같은 22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민간동우회 레저보트매니아 회원들

까지 계속해서 물을 펌핑했다. 바다와 흡사한 온도까지 올려서 치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한 들통에 배분을 시작했다.

레저 보트동우회 선장들이 미리 준비한 들통으로 한통 한통을 전달받아 신속하게 5톤 차에서 치어들을 전달받는 약30대의 레저보트로 이동, 선장들이 미리 준비한 기포기가 틀어져 있는 어장까지 안전하게 이동했다.

육상에서 1부 행사를 마친 관계자들이 안전하게 보트에 승선한 후 드디어 조피볼락의 고향이 될 입파도 근처까지 선두 보트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선대를 유지하면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입파도 근처에서 간단한 의식과 함께 조피볼락 치어 6만 마리를 안전하게 방류하는 행사를 모두 마쳤다.

레저보트매니아들은 말한다.

“조피볼락치어 한 마리 한 마리가 바다를 고향삼아 서서히 입수하는 과정을 보고 있노라니 그동안 낚시로 인해 얻어낸 왔었는데 이제는 바다에 무언가 돌려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이 행사는 그동안 1년 전부터 레저보트 레저보트매니아 동우회에서 각종이벤트와 치어방류기금을 통해서 1,000원부터 꾸준히 기금을 모아서 얻어진 값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다음 2회 행사 때는 좀 더 규모 있고 의미 있는 행사로 거듭날 것이다.

이곳 레저보트매니아 매니저와 운영진들은 어렵게 만들어지고, 처음하는 방류행사 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다했다.

이번 치어방류 행사는 민간 동우회 형태 단체에서의 치어방류 행사는 이번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인 것이다.

치어 구입부터 어느 단체의 도움 없이 레저보트매니아 단독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단독 치어방류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가 더욱더 의미 있고 뜻 있는 행사인 것이다.

이번 계기로 바다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각 협의체 및 관계협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바다에서 종사하는 어민들과 상생의 문제도 레저보트동우회에서는 바라고 있다.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따르면 경기도는 매년 약50억 원 규모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더불어서 각 지역의 어촌계와 같이 협치를 통해 더 좋은 레저 활동을 펼치고 어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레저보트매니아는 해양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에 결성돼 현재 전국 약 5만4,400여명의 동호인이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동호회이다.

레저보트매니아 동우회 회원들은 매년 경기국제보트쇼에 참여해 올바른 보팅문화 확산과 입문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레저보트매니아는 이번 치어방류에만 민간 동우회차원을 넘어서 그동안 10년 넘게 매년 5

월이면 어김없이 서해권 제부마리나와 인천 왕산마리나에서 1년중 가장 큰 행사인 안전기원제(시조회)를 치러왔다.

2025년도 안전기원제(시조회)는 과감하게 10년 동안 한번도해보지 못했던 경북의 울진군에서 처음으로 시도

를 했다. 큰 타이틀은 ‘안전기원제’이지만 지난 경북산불은 국민모두가 마음아파하고 진화도 많은 시일이 걸려던 산불이었다. 피해액도 어마어마했다.

이때도 일부회원과 운영진에서는 “25년도 안전기원제는 취소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경상북도 산불의 가장 피해가 많은 울진군에서 화마를 입고 주민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울진군 구산리 구산항 어촌계의 도움을 받아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펜션, 민박, 식당 등에서 1박2일 행사를 치루는데 일부를 사용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었다.

경상북도 산불로 전 국민이 마음아파할 때 동우회카페에서 자발적으로 울진에서 안전기원제를 통해 모금된 산불기금을 울진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회원들은 화마로 인해서 망연자실 하고 있는 영덕 노물항 피해복구 재능기부에 최선을 다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간단체인 레저보트매니아 동우회는 지난 5월8일 국회의원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낚시3법 개정과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포럼에도 참여했다.

5월14일에는 해양레저 관광분야 협회와 단체들이 참석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는 등 레저보트매니아는 바다가 원하는 자리이면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한 단체이다.

또한 레저보트매니아는 민간 동우회자격으로 참석해 낚시협회와 함께 1,000만 낚시인의 염원이 담긴 더불어민주당과 협약식을 치렀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왼쪽부터 레저보트매니아 김명철 매니저, 최병천 제부마리나 어촌계장,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레저보트동우회 관계자와 전 국회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 김금규 사업본부장, 제부리 최병천 어촌계장, 박종민 경기도농수산생명과학장과 많은 내빈들



레이보트매니아에서 치어방류를 하는 조피볼락



5월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낚시3법개정과 낚시관광활성화를 위한 낚시정책에 매니저 김명철



전국에서 재능기부를 하기위해 모인 레저보트매니아 회원들



더불어민주당과 낚시협회와 협약식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12회]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 모래언덕의 외딴 섬 학교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1960년대 대부도 대남초등학교 주변은 도로 상태가 너무 나빠서 비가 오면 장화 없이는 다니기 힘든 바닷가 놓여촌 마을이었다. 선생님들이 하숙하던 비물 마을은 동쪽, 서쪽, 북쪽을 막혀 있고, 바다가 보이는 남쪽은 터어 있어, 마을 전체가 크다란 천문대 구실을 하여 별이 아주 잘 보였다고 한다.

이 마을 이름이 '비물' 인데 대남초등학교 북서쪽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마을이다. 마을 이름 '비물'은 충청도 바닷가에서 '별'을 '비울'이라 하는데, 이 '비울'이 변음(變音) 되어 '비물'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여쭙어보니 대부도는 서산, 당진과 가까이 충청도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많았다고 하였다.

예로부터 대부도에는 부자들이 많았는데,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이 살았던 마을이라 집이 크고 방이 많아 선생님들이 하숙집으로 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대남초등학교는 마을과 떨어진 바닷가 일변인 소유였던 적산(敵産) 입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10m 이상의 해송 숲이 학교를 감싸고 있어 운동장이 크다란 천문대 역할을 하여 밤이 되면 별이 아주 잘 보였다. 2005년 교장사택에 거주할 때, 회식이 있는 날 밤 운동장에 들어서면 촛촛이 떠 있는 수많은 별이 머리위로 금방 쏟아질 것 같았다.

어릴 때 고향에서 보았던 북두칠성, 작은곰자리의 북극성, 큰곰자리의 삼대성, 오리온자리의 삼대성(三太星), 카시오페이아 등을 보며 옛 추억에 잠기곤 하였다. 2010년 겨울까지 운동장은 별보기 좋은 학교로 소문나 천문관측 동호회원이 많이 왔다. 아쉽게도 2011년 학교 주변 길가에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그렇게 잘 보이던 별들이 가물가물 해져 망원경으로도 관찰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부도에 근무했던 선생님들과 마을사람들에 의하면 다른 곳에 비하여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농산물도 많이 생산되어 인심이 후하고 막걸리를 많이 담가 먹었다. 오직했으면 “대부도에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선생님들은 쉬는 날이면 마을에 가서 일손 돕기를 하고, 마을의 생일과 회갑, 결혼, 상가(喪家), 제사 등



1960년대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 학교와 하숙집 마을



1960~70년대 대남(국민)학교 바닷가 자연보호

의 관혼상제(冠婚喪祭)와 설·추석 명절과 마을 잔치에는 선생님들을 자주 초청하거나 선생님들이 먹을 음식과 막걸리를 학교에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스승의 날이나 운동회 때도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선생님들을 잘 대접했다고 한다.

총각 선생님들은 회식이나 잔치가 끝나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외딴 학교의 바닷가 모래언덕에서 손뼉으로 박자를 맞추어가며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바닷가에서 헤어져 밤하늘의 반짝

이는 별을 보며 500m쯤 떨어진 비물 마을까지 걸어갈 때 온몸에 느껴지는 그리움은 수많은 별처럼 쌓여, 고향, 가족, 애인 생각이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전기가 없는 대부도 바닷가 학교의 오월은 인적하나 없이 캄캄한데, 별들은 더욱 초롱초롱하고, 빠꾸기, 부엉이, 풀벌레 소리는 더욱 요란하게 들렸다. 여기에서 모래 언덕의 소나무 숲 사이로 부는 바닷바람 소리에 더해 느껴오는 차가운 밤공기로 고향과 부모님 생각에 외로움 커가 '섬마을 선생님' 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올 듯하지 않는가?

데스크 칼럼

침체된 대부도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김태창
편집국장

대부도는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최근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침체를 겪고 있다. 현재 대부도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60여 곳에 달하지만, 이 중 일부는 2년 동안 한 건의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한 셈이다. 부동산 시장의 정체는 단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첫 번째 원인은 고금리에 따른 투자 위축이다. 토지 거래는 대부분 대출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금리의 고공행진은 이자 부담을 키워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를 주저하게 만든다. 여기에 더해 건축비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당 4~5백만원 수준이던 건축비는 현재 8~9백만원으로 뛰었고, 고금리 상환으로 지을 경우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한다. 인건비와 자재비 모두 오르며 실질적으로 주택을 짓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빈 땅은 늘고 있지만, 그 위에 집을 지을 여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수요 부족이다. 대부도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자족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 관광지로서의 장점은 있으나, 실거주지로 선택되기엔 교통, 교육, 의료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해 거주 유인이 떨어진다. 외지인 유입이 제한되고 지역 내 수요도 크지 않아 부동산 거래 자체가 극도로 위

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침체된 시장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

첫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규제 완화와 동시에 건축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 공공주택 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대부도의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은퇴자를 위한 고급 전원주택 단지, 해양레저 복합단지 등의 개발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은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가 협업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셋째,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생활 편의시설 유치도 시급하다. 접근성이 높아지고 생활 기반이 갖춰지면 실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안산시가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대부도 주민과 안산시가 협력해 지역브랜드를 강화하고, 체험형 관광이나 농어촌 체험 마을 등 다양한 소득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안산시와 민박협회와 공동으로 '대부도에서 한 달 살기'나 '대부도에서 1년 살기'를 통해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기존 1세대 펜션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의 움직임과 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자산이다. 고금리 시대가 마무리되고 정부 정책이 안정 기조로 전환되면 투자 심리도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때를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지금부터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도는 분명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다. 다만 그 잠재력이 꽃을 피우기 위해선 보다 치밀한 전략과 실천이 필요하다. 무너진 신뢰와 기대를 회복하기 위한 구조적 대 전환이 시급하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충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5년 경력 간판 제작 설치 전문업체

Led채널. 특수제작간판. 썬팅. 현수막. 명함. 판촉물

 **mi-re**
enterprise

미래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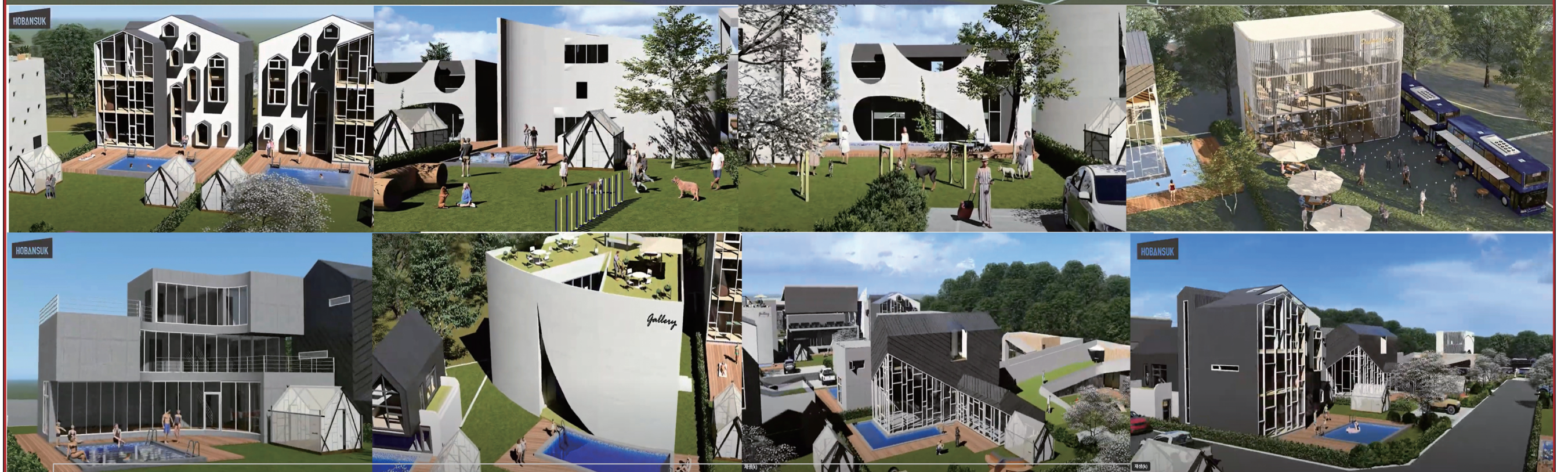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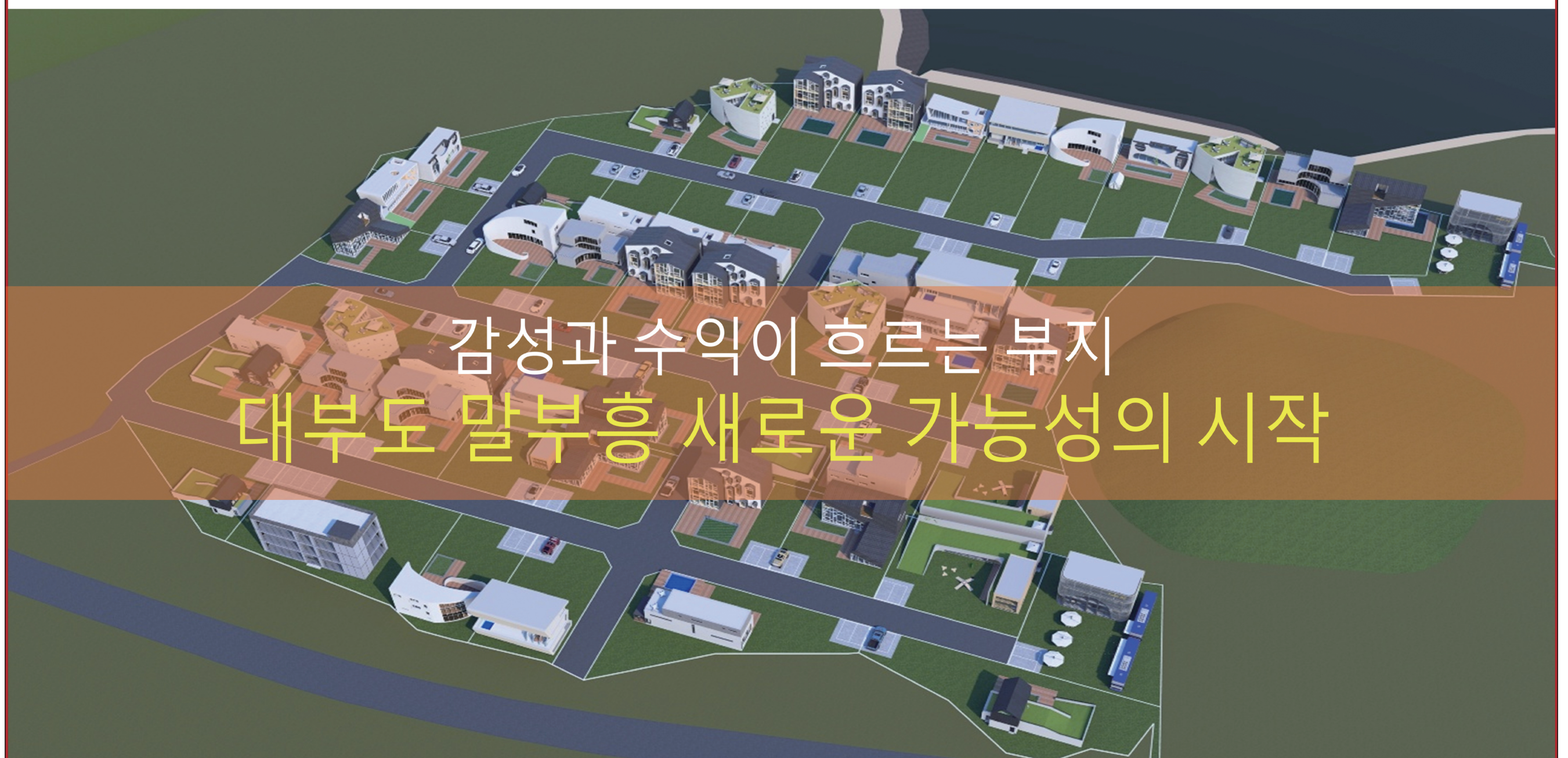
대표 이병철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133(대부북동) ☎ 010.9366.9699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